

마지막 말 (여호수아 24:14-18)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사실은 가장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소원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올 해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 올해의 말씀이라는 것은 올해는 이것을 마음에 각인하라는 말이다. 올해 우리가 받을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이다.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계속 받아야 한다. 죽을때까지 받아야 한다. 문제가 계속 오기 때문이다. 그것 넘어서려면 응답 받아야 한다. 조그만 응답을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씩 기적도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응답이 쌓여 있는 것이다. 응답이 쌓여야 미래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 응답이 계속 쌓이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면 문제 와도 상관 없다. 미래 염려할 필요 없고 정복해 버리게 된다. 무엇으로 정복하는가? 가보지도 않은 미래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필요 없다. 정복이다. 끝났다. 무엇을 바탕으로 이 믿음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스도. 그것과 함께 더욱더 실질적인 증거도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바탕도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바탕이 무엇인가? 받아놓은 응답이다. 이 두가지를 가지고 미리 응답을 받고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올 해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연히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정복이 일어난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소원이다. 미스바라는 단어로 설명을 많이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미스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 미스바 운동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올해의 메세지이다. 언약이 되기를 바란다. 그 때, 기적이 일어나 버렸다. 원수 박살 나 버렸다. 그 때 이후로 오래동안 미래에 전쟁 없었다. 이것이 미래를 정복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미스바 운동, 미국에 대하여 미스바 운동, 남미에 대하여 미스바 운동, 남미 끝까지 미스바 운동, 렘넌트 다민족의 미스바 운동, 이것이 올해의 언약이다. 이것이 올해의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거기에 응답이 있다. 거기에 기적이 있다. 이것으로 니 미래를 정복하라는 것이다. 올해의 메세지이다. 내 인생의 미스바 운동, 이것을 위하여 오늘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이다. 미스바 운동을 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을 준비해왔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미스바 운동 못한다. 분명히 우리는 미스바 운동까지 가야 한다. 올해는 미국에 대하여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남미 끝까지 갈 진짜 미스바 운동 준비하는 것이다. 100팀. 사무엘처럼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 근본 언약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잡은 하나님의 시간표, 미스바 운동이 언약되기를 바란다.

1. 마지막 말

이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다.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전쟁을 이끈 아주 영웅이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후후무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에게도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그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 뭐냐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올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라. 그때 나는 내 가족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그 말이 나이다. 그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말할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때, 만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말과 같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분명히 많은 증거가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같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시대적인 인생을 산 것일 것이다. 세상 정복했을 것이다. 대적 정복하고, 인생문제 정복했을 것이다. 그 만큼 제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내가 하는 마지막 말이라면 이것이 그의 언약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 각인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했다. 중요한 이야기이다. 이것 들어오면 인생 정복하게 된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개 딱 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 중대한 사람이 제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제자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시대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증거 많이 있다.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살아 있는 사람중에도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예수님 마지막 말을 내게 말씀하셨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는 이 제자 운동을 해라. 제자가 이해되어야 한다. 니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를 것이다. 치유운동을 해라. 그리고 네 어린양을 먹이라. 너는 잊지 말고 렘넌트 운동을 해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237, 5천종족, 선교운동을 해라. 우리에게 주신 단어는 너 100팀해라, 100지교회 해라. 예수님의 유언이다.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237, 치유, 서민 나왔다. 전도는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안 누려서 그렇다. 되어지는 전도를 못 봐서 그렇다. 그 때 오는 축복과 권세와 능력을 못 봐서 그렇다. 그래서 전도가 짐이다. 그것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전도는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전도는 누리고 능력이고 권세이다. 그리고 전도는 응답이고 정복이다. 왜 이것이 안되는가? 이리로 가는 출발이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다. 그러면 되어지는 전도가 된다. 그러면 쌓이는 전도가 온다. 그러면 그때 알게 된다. 전도는 노력이 아니구나. 이 건 축복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동참하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응답이야, 이것이 권세야. 이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야.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이것이 전도자에게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은 되어져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답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누려라. 항상 그렇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미스바 운동은 내가 하는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이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다. 눈이 열리고 들어와서 언약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마지막 말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통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은혜로 받았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도 이 사실을 뒤집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들어왔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은혜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도 못 막는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데 누가 이 사람을 막겠는가? 이게 답이다. 이게 응답이다. 이걸 묶어서 한단어로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내게도 소원이면 그 사람 진짜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응답 받는다. 이미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다. 기도 안해도 된다.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도는 안해도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다. 자동적으로 응답을 받고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다. 아마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자

꾸만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바뀌 가는 것이다. 누구인가? 하나님의 이 소원이 언약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자동이다. 계속 바뀐다. 자꾸 더 깊어진다. 자꾸 더 큰 인생이 된다. 진짜 인생이 된다. 출발이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이다. 정말로 우리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미국의 참된 미스바 운동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자꾸만 바뀌서 완전 증인 되게 하신다. 모든 것 다 정복했다. 아무것도 생각도 안나.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 미래도 정복해버렸다. 그 말은 신경도 안쓰는 것이다.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왜냐면 지금까지 응답한데로 될것이니까. 완전 증인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노력한다고 염려 안되는 것 아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게 되는가? 염려 정도가 아니다. 정복해버리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이것이면 염려가 아니고 정복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시간공간을 다 초월한 이런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된 것을 그 사람에게 계속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원,

우리는 미국에 도전한다. 올해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해이다. 말씀으로 받았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복음운동하기에 가장 힘든곳이 미국일 수 있다. 모슬렘보다, 공산권보다도 더 교묘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다. 우리는 여기에 복음으로 도전한다.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전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미 이겼다. 이유가 뭐냐면 상대는 사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잡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언약이 되기 바란다. 올해는 사람소리 다 버리고 100팀, 100지교회 기도하기 바란다.

2.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미스바 운동을 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해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사실 23장 1절부터 시작된다.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을 불렀다. 장로, 수령,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때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힘써 행하라고 하였다. 사실 이것만 지키면 끝이다.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대적을 꺾어버린다. 이 율법을 지키면 역사하는 사단을 꺾어주신다. 약속이다.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희생제사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이다. 하나님은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였다. 여호수아 1장에서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에 있는 행위들을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다. 그 율법 전체의 핵심, 언약의 피제사이다.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사단이 무너진다. 그러면 구체적인 항목을 지킬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 영적인 힘이 없이는 조그만 항목도 못 지켜낸다.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것인데, 남의 것 훔치면 안되는 것은 유치원생도 안다. 그런데 훔친다. 어떻게 하면 안 훔치는가? 손질라도 안된다. 없는 손으로 또 훔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로는 안되고 언약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은 핵심이 행위가 아니고 행위를 뛰어넘고 정복할수 있는 언약인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 하셨다.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려 오셨다고. 어떤 사람은 율법 항목 하나하나를 다 지켰다고 해석

하는 사람도 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 지킬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다. 왜냐면 이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이 희생제사이기 때문이다. 희생제사를 성취한 것이 십자가이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지키기는 다 지켰는데 십자가 안 지켰으면 성취 안되는 것이다. 언약도 안되고 지금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사단을 격기 위해서 잡을 언약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려 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는 것이다. 그 방법은 희생제사이다.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다. 왜냐면 율법이 말하는 것이 희생제사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해라. 언약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한다. 이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세상에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근본이다. 그게 그리스도이다. 미스바 운동은 언약계 옆에서 언약을 배운 사무엘이 했다. 사무엘만 할수 있다.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물론 창세전의 계획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언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사람이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이다. 사무엘도 그 날,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던 그 날 첫먹는 어린양을 번제로 드렸다. 그 날, 언약을 행했다는 것이다. 미스바 운동의 핵심, 내용,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박의 기적으로 답을 하셨다. 우리도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대를 두고 준비하신 종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훈련을 통해 이 언약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밖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우리만큼 언약이 준비된 사람이 잘 없다. 간단한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을 해도 형편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밖에 있다. 이제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우박의 기적이다. 대적들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증거와 미래가 남아 있다. 미래에도 아무 전쟁이 없어지는, 미래를 정복하는 것도 남아 있다. 이것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준비할 것, 그리스도이다. 시대적인 역사를 일으킨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 중의 공통점, 언약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그 날도 사무엘은 언약을 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잡은 기도를 했다. 언약이 준비된 자는 언약의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언약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다. 문제만 영적문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영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다. 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자는 육신적인 것도 자동으로 되어 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것이 내 인생의 경계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6:33이다. 언약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구나, 발견되기 바란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 시간표가 필요하다. 이미 모든 것은 다 완성되어 있다. 그게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언약되어지고, 그렇구나 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내 맘대로 안되니까 기도를 주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도하기 바란다. 마음이나 생각이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곳으로 가는 것이 치우치는 것이다. 인생 미스바 운동은 누구나 필요하다. 영적인 증거만 나타나게 아니라 육신적 정복도 일어난다. 그래서 경계문제, 가정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이 운동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 준비된 자가 이 운동을 할수 있다고 하신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결론에 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